

추모사

근대의 고승 만공스님께서서는 세계는 오직 한 송이 꽃인 世界一花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세계일화를 전 생애를 통해 구현하신 숭산행원대중사님이 열반에 드신지 5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5주기 추모다례 및 사리탑 제막식을 준비하신 덕숭총림 방장이자 화계사 조실이신 설정스님, 화계사 주지 수경스님, 수법제자, 그리고 전 세계에서 큰스님을 흠모하여 모이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숭산행원대중사님은 국경도 종교차별도 미움도 없는 참 부처님의 세상인 세계일화를 증명한 인류의 스승입니다. 경허, 만공, 고봉으로 이어지는 임제선맥을 이으신 스님께서서는 세계 30여 개국에 120곳의 선원을 세우고, 수십 명의 외국인을 출가시켜 제자로 삼았으며, 수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끌었습니다.

숭산행원대중사님은 위대한 선승이면서 동시에 행동하는 스님이셨습니다. 치열한 수행으로 견성하신 스님은 우리 종단의 초창기 정화운동에 앞장섰고, 理事에 걸림 없는 탁월한 추진력으로 총무원 총무부장과 재무부장, 동국대학교 상무이사 등을 지내시며 조계종단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숭산행원대중사님께서 노력하신 일은 ‘해외포교’였습니다. 그 옛날 목숨을 걸고 사막을 넘고 바다를 건너 법을 배우고 전하던 구법승처럼, 스님은 세계를 누비며 한국불교 국제화에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 결과 깨달음의 등불을 이은 법제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치열하게 수행하며 부처님의 혜명을 잇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5주기를 맞아, 숭산행원대중사께서 왜 어렵고 힘든 해외 포교를 시작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스님은 행동하는 선사였기 때문입니다. 인류와 시대의 위기를 간파하는 혜안은 깨달음에서 비롯하였습니다. 중단 없는 추진력은 실참의 힘과 신심의 원력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에도 머뭇거리지 않으신 것은 이미 분별을 타파하셨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문명과 정신의 위기 속에서 참 진리를 갈구하는 사람들

에게 감로와 같은 가르침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행동하는 선사 송산행원대중사님의 진면목은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하고 10.27법난을 자행한 전두환정권을 비판하는 서한을 보낸 일화로도 증명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나라, 내 민족이 고난을 겪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 글을 쓰게 됐다”며 “인간성 회복 운동을 전개하여 우리 각자가 본마음을 찾아 시비를 없애고 선악을 초월하여 절대적인 세계”를 이룰 것을 갈망하였습니다.

전통을 변함없이 지켜온 한국의 간화선이 인류의 갈등을 해소해 줄 대안이겠지만, 이는 송산행원대중사님처럼 스스로를 구제하고 세상에 나설 때 나를 돌보지 않으며 오로지 자비원력으로 소통 화합할 때 비로소 생명력이 있을 것입니다.

송산행원대중사님이 피운 한 송이 꽃의 향기는 세계로 퍼져 지지 않는 꽃으로 피어있습니다. 스승이 열반에 드신 뒤에도 제자들이 스승의 유지를 받들어 세계 도처에서 모두 열심히 수행하며 법을 펴고 있다는 점이야말로 5주기에 올리는 가장 향기로운 다례입니다.

‘오직 모를 뿐’이라는 가르침과 ‘온 세계는 한 송이 꽃’이라는 송산행원대중사님의 가르침을 인류의 화합과 세계평화를 이뤄가는 소중한 교훈으로 삼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과, 또 세계 도처에서 열심히 수행하는 제자들이 큰 깨달음을 얻게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불기 2553(2009)년 12월 4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